2026.03.09.

국내 석유화학 업체의 납사 수급 상황 점검

장미수 기업1실 책임연구원
02.368.5471
msjang@korearatings.com

최주욱 기업1실 실장
02.368.5303
jwchoi@korearatings.com

3월 4일 여천NCC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납사 수급 차질에 대응하여 고객사 전반에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였다. 장기공급계약 매출 및 중동산 납사 조달 비중이 비교적 높은 점이 주요 배경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석유화학 업체는 통상 평균 1-2개월 전 납사를 주문하며, 중동산 비중이 30~50% 수준이다. 공급망 이슈가 4~5주 내에 해소된다면 원료 조달 차질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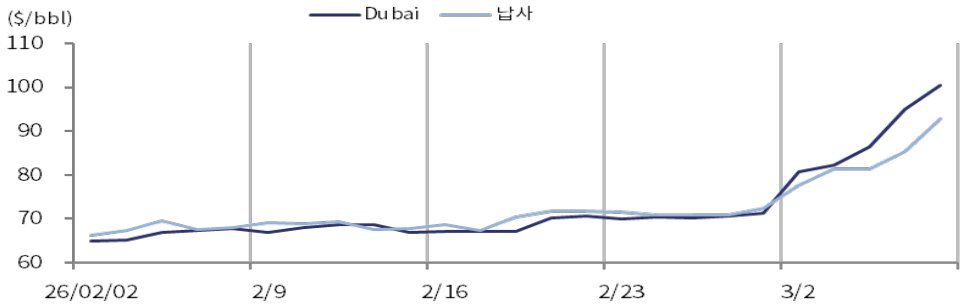
업체 전반은 이미 계획되어 있던 정기보수 일정을 앞당기거나 가동률을 하향조정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KR은 역내 주요 제품별 수급상황 및 판매가격 추이, 업체별 원료 조달 다각화, 가동률 조정에 따른 생산단가 및 판매가격 추이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1. 미국-이란 사태 업데이트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였으며,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걸프 연안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였다. 이란군은 바레인 정유시설, UAE,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 전역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였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막진 않을 것이나 안전 책임은 해당 선박에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이스라엘·미국 선박에 대해서는 공격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 내 에너지 시설 타격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우려 등이 심화되고 있다. 쿠웨이트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에 따른 수출 중단, 저장 공간 부족 등으로 대규모 감산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며, UAE, 사우디 등도 조만간 감산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두바이유는 2월 27일 $71.2/bbl에서 3월 2일 $80.8/bbl로 급등하였고 6일에는 $100.4/bbl를 돌파하였다. 납사 또한 2월 27일 $68.9/bbl에서 3월 6일 $86.1/bbl로 상승하였다.

유가 및 납사가격 추이



자료) petronet

2. 국내 석유화학 업체별 대응 현황 및 주요 모니터링 요인

2026년 3월 4일 여천NCC는 납사 수급 차질에 대응하여 고객사 전반에 제품 공급 계약 이행의 지연·조정이 가능함을 통보하고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였다. 불가항력 선언은 전쟁, 천재지변 등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울 때 판매자의 배상 책임을 면제받기 위한 조치이며, 주로 장기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여천NCC의 경우 주주사 및 기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장기공급계약이 연간 매출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가운데, 2025년 8월부터 NCC #3기를 가동 중단하였으며 나머지 크래커 설비 가동률도 70%대를 유지해왔다. 그리고, 중동산 납사 도입 비중이 비교적 높아 제품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한 점이 금번 불가항력 선언의 배경인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가동률을 하향할 계획이며, 주요 고객사와 공급물량 등을 협의 중에 있다. 주요 고객사는 저수익 제품 공정부터 중단하는 등 생산제품 믹스 조정을 통해 대응할 예정으로 파악된다.

국내 주요 석유화학 업체 평균적으로 평균 1-2개월 전 납사를 주문하며, 중동산 납사 도입 비중은 30~50%대인 것 파악된다. 전쟁 및 공급망 이슈가 4~5주 내에 해소된다면 원료 조달 차질의 영향을 일정 수준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 전반이 장기화에 대비하여 내수 및 역내 소싱을 비롯한 대체 조달 루트를 발굴하는 가운데, 이미 계획되어 있던 정기보수 일정을 앞당기거나 가동률을 하향조정하여 가동 중단을 방지할 예정이다.

원료 공급 차질에 따라 역내 화학제품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경우 공급부담이 경감되며 스프레드 하방 압력을 완화할 수 있겠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중국은 러시아, 브라질, 서아프라카 등 비호르무즈 원유 수입 비중을 확대하여 중동 원유 의존도를 40~45%로 낮춘 상태이며, ECC, CTO/MTO 등 여러 업스트림 시설을 보유하여 중단기적인 대응력이 한국 대비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이 장기화될 경우 원료조달 지연 및 생산 차질이 발생하여 석유화학사 전반의 가동률이 10%p 이상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동률 하향 조정 시 생산단가가 상승하는 반면, 공급 부담으로 인해 원가상승분을 판가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 한편, 정유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업체의 경우, 비교적 수익성이 우수한 정유 비중 확대를 통해 당분간 수익성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 산업 전반으로는 역내 주요 제품별 수급상황 및 판매가격 추이, 업체별로는 원료 조달 다각화 수준, 가동률 조정에 따른 생산단가 추이와 판매가격 전가력 등이 주요 모니터링 요인이다.

[유의사항]

(1) 한국기업평가㈜(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분석 시점에서의 당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제반 연구자료(이하 '간행물')는 상기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당사 또는 필자 개인의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의견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의 미래 상환능력 등에 대해 예측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신용등급 산출 및 간행물 발간(이하 '신용평가업무 등')에 이용되는 모든 정보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제3자 요청 신용평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 산출 시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신용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의 오류 및 사기, 허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당사는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분석자•분석도구 또는 기타요인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신용등급 및 간행물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당사 간행물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평가업무 등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사 신용등급 및 간행물 상의 정보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당사는 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 혹은 보유를 권유하는 정보가 아니며 시장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도 아닙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그 내용으로 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고 금융상품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스스로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각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시장 전문기관을 일차적인 이용대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에 의한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개인투자자 스스로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되지 않은 신용등급이나 제3자 요청 신용평가에 따라 산출된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평가 요청인 이외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믿고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5)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사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Copyright 2026, Korea Rating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대표전화: 368-5500 FAX: 368-5353.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한국기업평가㈜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도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또는 재인용), 배포될 수 없습니다.